

다윗, 텅 빈 경건의 왕

* 6/23(수) 사무엘하 ④ 14-17장 / 시 3편

| 사울과 다윗 1-4장 | 다윗 5-24장 |
|---|---|
| <p>죽음, 사울 가문의 몰락 1-4장</p> <p>▶ 암논과 암살롬의 누이 · 암논과 암살롬의 누이 · 암살롬의 귀환, 음모 · 妻기는 아버지, 妻는 아들 · 아들의 죽음, 아버지의 애도</p> | <p>이스라엘의 왕 다윗 5장 여호와의 궤와 언약 6-8장 다윗과 므비보셋 9장 다윗의 죄, 하나님의 용서 10-12장</p> <p>▶ 암살롬의 폭주, 다윗의 도피 13장-19: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암논과 암살롬의 누이· 암살롬의 귀환, 음모· 妻기는 아버지, 妻는 아들· 아들의 죽음, 아버지의 애도 |

Before 출치며 읽기

정확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통독해 보십시오.

After 묵상하기

나는
굳은 마음 입니까,
부드러운 마음 입니까?

고통의 쓴 잔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의 집에 우환이 끊이지 않습니다.

• 마셔야 할 쓴 잔 : 고통의 문제

그의 아들 암논은 ‘암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하고,
버립니다(13:1-17). 다윗은 이 사실을 들어 알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암살롬은 복수하는데 성공합니다.
2년 전의 ‘그’ 일로, 암논을 살해합니다(13:28-29).
그러고는 어머니의 땅 그술로 도망갑니다(13:37, 대상 3:2).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무고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살인은 어디까지나 살인입니다. 이제 그가 마실 차례입니다.
아들의 죽음은 그가 마셔야 할 쓴 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두 손에는 공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고통의 문제는 있습니다.
고통의 날에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참고도서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두란노 HOW주석
통성경 길라잡이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 돌아옵니다.

3년 만에, 아버지의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 마시지 못 한 잔 : 소통의 부재

그가 돌아온 지 2년이 지나도록,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크지 않은 도시입니다. 2년 내내 아들을 피하려면, 주도면밀(周到綿密) 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표면적으로 ‘용서’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용납’ 하지는 않았습니다.

작심한 아버지가 쾌嚓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굳은 마음으로 잘못을 저지릅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다말 사건은 암논 살해를 낳았고, 암논 사건은 부자 이별을 낳았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의 죄에 복수로 심판했고, 다윗은 압살롬의 죄에 무시로 심판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 벼림으로 그를 제거했고, 다윗은 압살롬을 멀리함으로 그를 제거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죄 때문에 아들 암논을 잃었고,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 압살롬을 잃게 됩니다.

불을 질러 5년 만에, 부자(父子)간의 만남이 성사되지만

서로의 관계 회복에 별 도움은 못됩니다. 동상이몽(同床異夢)입니다(14:33).

아버지는 아들을 되찾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 마시고 난 빈 잔 : 보통의 과제

왕자의 난(亂)이 시작됩니다. 아버지를 향한 분노의 복수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설 곳이 없게 했다면,

아버지로 하여금 설 곳이 없게 할 차례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만듭니다(15:1). 성문 재판에 서서, 민심을 훔칩니다(15:2-6).

사사 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왕에게 기대되는 두 가지의 직무> 중,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 내부의 화합을 유지하는 일을 수행합니다(삿 4:5, 삼상 7:15).

아버지의 모사(謀士) 아히도벨을 확보합니다(15:12). 4년에 걸쳐 계획을 실행합니다.

주도면밀한 아버지의 용의주도(用意周到)한 아들이 결국, 아버지를 몰아냅니다.

민심을 잃은 왕 다윗이 목숨을 걸고, 다시 광야로 갑니다(15:14-23).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반역의 잔으로, 텅 빈 경건을 채웁니다(시 3).

‘그’ 광야에서 그의 왕관을 벗고, ‘그다음’을 회복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수용합니다(16:10-12).

<언제나 사랑해 왔지만, 잠시 잊어버렸던 것>을 되찾았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고통은 때로 우리를 더 나빠지게 하는 대신, 우리를 더 좋아지게도 합니다.

달빛마저 슬퍼 보이는 고통의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나다움’을 회복하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겔 36:26).”